# ‘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개발협력’ 토론

산업연구원 임소영

## 1. 디지털 기술의 융합적 성격을 고려한 개발협력

ㅇ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섹터에 통합되어 개도국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융합적 특성을 지님.

- 디지털 기술은 개발협력 사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면서 유의미한 개발 효과성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개발협력 사업과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임.
-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에서도 별도의 목표로 설정되지는 않았으나, 다수의 세부목표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합한 내용을 포함함.

ㅇ 개발협력 사업과 운영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에 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, 지속적인 추적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관련 활동을 판별할 수 있는 일관된 수단이 필요함.

- OECD DAC의 CRS 코드로 판별할 수 있는 통신(communications) 섹터만으로 ODA 사업의 디지털 요소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, 특히 디지털 융합 사업의 판별에 어려움이 있음.
- 정책마커 형태의 툴이 필요함.

## 2. 개도국 여건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협력 중요

ㅇ 개도국의 기술도약(leapfrogging)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할 때,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개발협력에서는 공여 기관의 디지털 개발 전략에서 더 나아가 수원국 현황 분석이 중요함.

- ‘기술결정적 접근방식의 지양, 현장 축적 맥락적 지식 및 네트워크 활용’의 함의가 의미 있음.
- 개도국의 디지털 여건에 관한 World Bank, ITU 등의 관련 지수에 대한

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요구됨.

## 3.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개발협력의 디지털 전환

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행위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협력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임.

- 개발협력의 디지털 전환은 ① 국별 사업 구성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디지털 통합과 ② 개발협력 기관 조직 내 디지털 통합이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가능함.
- 또한, 개발협력의 비대면 확대 접근법은 ODA의 현장화와 긴밀히 연계됨.
- 이들은 결국 수원국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인프라 구축이라는 필요충분조건을 요구하게 되며, 이와 더불어 개발협력의 책임성(accountability) 증진을 필요로 하게 됨.